

“질병 조기·정밀 진단 실현 힘쓰겠다”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세계분자영상학회 펠로우 선출 한국인 최초 영예...학회 장기 발전전략 수립·멘토링 역할

“세계 유수의 연구자들과 머리를 맞대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환자별 정밀 진단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정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교수(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가 한국인 최초로 세계분자영상학회(World Molecular Imaging Society·이하 WMIS) 최고 영예인 펠로우(Fellow 석학회원)에 선출됐다.
17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따르면 WMIS는 최근 수상위원회(Award Committee)를 열어 민 교수를 만장일치로 펠로우에 선출했다.
WMIS는 분자영상 분야 유수의 연구자들이 모이는 세계 최대 학회로,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WMIS는 학회와 해당 분야의 학문 발전에 공로가 가장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펠로우로 선출한다. 이는 분자영상 분야의 세계적 석학임을 인정받는 영예로운 자리다.
WMIS 펠로우는 학회의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젊은 세대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한다. 현재 펠로우는 총 40명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31명, 독일 3명, 중국 2명, 한국·일본·네덜란드·이스라엘 각 1명이다. 한국인으로는 민 교수가 처음이다.
민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분자영상학자로서 한국인 최초로 WMIS 이사로 선출됐다. 또 학술위원회·추천위원회·실행위원회·합성생물학



홍미그룹 등에서 의장 또는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에는 차기회장 후보에 추천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대한핵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특히 세계 최초로 약물을 방출하는 살모넬라와 대장균을 개발, 암 치료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약성 특성종·각종 감염증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하는 등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해결하는 테라노스틱스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그는 현재까지 250여편의 논문을 국내·외에 발표했으며, 80건의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해 이중 21건이 기술이전됐다.
민 교수는 “분자영상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분자 수준의 미세한 변화를 영상화하는 기법으로 기초과학기술과 첨단영상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학 분야”라며 “세계 유수의 연구자들과 머리를 맞대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환자 개인별 ‘정밀 진단’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목포해경, 섬마을 이동 민원실 호응

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최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목포시 율도를 방문, 이동 민원 봉사실을 운영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이날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경찰관, 의무경찰 등 총 14명이 목포시 율도를 방문했다.
이들은 ▲해상(수산) 법률상담 ▲독거노인 가사 지원 ▲어선 기관설비 점검 ▲선착장 및 항·포구 정화활동 ▲코로나19 방역물품 전달 등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은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섬 마을 이동 민원실 운영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릴 수 있었다”며 “찾아가는 봉사활동으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해남경찰서, 위기 어르신 범죄예방 활동

해남경찰서(서장 송세호)는 최근 자치경찰 1호 시책인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내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을 방문, 찾아가는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온라인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보이스 피싱 범죄피해 예방법 홍보·교육 및 학대 등 위기 어르신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송세호 해남경찰서장은 “초고령화 사회로 인한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은 중점추진업무 중 하나로 분야별 시책을 추진 중”이라며 “어르신 문제 발견 및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기자



완도경찰서, 노인범죄 예방 치안 간담회

완도경찰서와 군 대한노인회는 전남 자치경찰 1호 시책인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르신이 행복할 완도’를 주제로 치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 대상 범죄 현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인 학대 예방 등 주요 추진업무 사항 홍보 및 범죄예방에 대한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숙희 완도경찰서장은 “소의·폭력으로도 노출된 어르신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고, 지역 내 노인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전남농협, 수확기 관내 RPC 수매 현장 점검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쌀 수확기를 맞아 영암·강진지역 쌀 수매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더불어 관내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농가 벼를 최대한 전망 매입해 농가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수매 현장의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일 통계청은 쌀 생산 예상량을 전년 대비 32만(0.1%) 증가한 382만으로 발표했다. 신곡 수요 예상량 354만을 고려하면 28만이 과잉생산될 것으로 전망돼 수확기 시장 격리 등 정부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변은진기자

전남농협의 올해 쌀 매입량은 예전 수준인 32만t을 매입해 전남 생산량의 45% 안팎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비축은 12만t 매입을 예상하고 있다.
매입 품종은 전남 대표 품종인 새청무를 비롯해 신동진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 새일미, 일미 등도 매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본격적인 쌀 수확기를 맞아 현장에서 고생하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가벼 전망 매입과 쌀값 안정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변은진기자



적십자 광주전남지사·RCY, 헌혈·청렴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최근 동구 총장로 헌혈의집 일대에서 대학생 RCY 단원 및 직원 10여명과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됐으며, 청렴문화 전파 및 인식개선을 위해 실시됐다.
한 실천 운동도 함께 진행했다.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매월 13일은 헌혈의 날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 수급에 동참해줄 바란다”며 “이번 캠페인이 청렴 감수성과 청렴 실천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한 실천 운동도 함께 진행했다.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매월 13일은 헌혈의 날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 수급에 동참해줄 바란다”며 “이번 캠페인이 청렴 감수성과 청렴 실천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목포 부주동 주민자치위, 원룸 밀집지역 환경정비

목포시부주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으로 관내 원룸 밀집지역에 쓰레기 분리 배출함 2개소를 설치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나섰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이 급증함에 따라 1회용품, 각종 쓰레기가 예년보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부주동 원룸 밀집지역 쓰레기 배출지 주변은 다량의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생활 및 자동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주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복지센터는 원룸 밀집지역 주민

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과 청결활동을 실시하고 2개소에 쓰레기 분리 배출함을 설치했다.
서오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 스스로 앞장서서 동네를 깨끗하게 가꿔야 한다”며 “쓰레기 줄이기, 종량제봉투 사용, 분리 수거 등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신 부주동장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시작”이라며 “모든 주민이 클린 부주동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담양 월산면 지사협, 20여가구 이불빨래 봉사

담양군 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장근석·민간위원장 박형선)는 최근 이웃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가을맞이 찾아가는 이불빨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개인 위생의 중요성이 커진 시기에 세탁시설이 열악해 부피가 큰 집구구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정승근기자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진행된 행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마을 이장이 직접 대상자 20여 가구를 방문, 이불을 수거하고 깨끗하게 세탁 후 직접 배달했다.
박형선 민간위원장은 “직접 찾아가는 빨래봉사를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이웃이 이웃을 돕는 마을공동체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근기자

영광 다문화 예술동아리 ‘락뮤’ 정기공연 성료

영광교육지원청은 17일 “최근 영광 다문화 학생 예술동아리 ‘락뮤’가 제7회 정기공연 ‘특별한 권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락뮤 공연은 2015년부터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호흡을 맞춰 뮤지컬 연습을 하는 등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매년 열고 있다.
올해 정기공연은 특별히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내용을 공연, 의미를 더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해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돼 민주주의를 지킨 4·19혁명과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얻은 소중한 한 표에 관한 이야기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락뮤 동아리는 밴드부와 뮤지컬부로 운영되고 있다. MR반주를 사용하는 기존 뮤지컬과 달리



라이브 연주에 맞춰 공연하는 게 특징이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됐으며 유튜브 생중계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이 관람할 수 있게 진행됐다.
김춘곤 영광교육장은 “다문화 예술동아리 락뮤가 영광 학생들의 문화 예술 역량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수기자

조선대-스포티즘82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협약

교육사업·협력 플랫폼 구축
조선대 미술체육대학이 스포츠커뮤니케이션 회사 스포티즘82(SPTZ82)와 국제스포츠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조선대 미술체육대학 3층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미술체육대학 서영환 학장, 스포티즘82 최지아 대표를 비롯해 대학 구성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국제스포츠 인재양성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친선교류 ▲국제스포츠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스포츠 교육사업 운영 지원 및 협력 ▲양 기관의 브랜드 및 플랫폼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활동 ▲산업체 위탁 교육을 통한 맞춤형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환 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지원과 최적의 인적자원 양성, 상호 간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지아 대표는 “광주·전남 스포츠 인재 양성

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 학생들이 취업 기회를 제공받고 해외 진출까지 가능한 네트워크, 협력 플랫폼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포티즘82는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 위치한 스포츠커뮤니케이션 회사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스위스 로잔에 설립한 AIST S(국제스포츠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의 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 국제 스포츠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박희중기자



결혼

- 오복교(전 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박성예씨 아들 윤종균, 김영록·채종덕씨 딸 가람양=23일(토) 낮 12시 광주 서구 풍서자로 재이아트웨딩홀 1층 아모레홀.
- 하석근·김원자씨 아들 재호군, 백진기(전북 남원 서물정의학과 원장)·최옥씨 딸 가은양=23일(토) 낮 12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성당.
- 김종모(전 해태 타이거즈 코치)·서경화씨 아들 승현군,故안용만·김마리아씨 딸 진양=23일(토) 오후 5시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동편 B1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
- 김희혜성·김귀남씨 아들 관홍군, 김용연(신공산업 대표)·황금씨 딸 서영양=24일(일) 낮 12시30분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엔홀.

부음

- 이행수씨 별세, 이형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부친상=발인 19일(화) 오전 11시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2층 장공(062-250-4455).